



| 한·미 FTA 관련 토론행사 개최현장② |

‘한·미-한·캐나다 FTA협상 대응책 워크숍’

지난 2월 10일 축산회관 지하에서도 한·미-한·캐나다 FTA 협상 대응책 워크숍(축산신문사 주최)이 개최되어 미국 및 캐나다와의 FTA 추진과 협정체결에 따른 국내 농축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대한 협상대책 및 국내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 토론이 이뤄졌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농경연 최세균 박사는 품목별 관세감축율에 따른 세가지 시나리오 가정하에 이뤄지게 될 한·미 FTA의 농업부문 파급효과를 설명하였다. 아울러 그는 미국이 호주와 FTA를 체결하면서 자국의 설탕 제품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쇠고기, 유제품 등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18년 또는 그 이상의 장기간의 이행기간을 설정한 예를 들며 우리나라도 국내 민감품목을 중심으로 시장개방 예외 등 특별취급을 인정받도록 협상대응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의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이승호 협회

장은 미국 무역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인용, 한·미 FTA 체결시 연 90억달러의 무역역조와 섬유·의류를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고용감소가 발생할 것이라 지적하고 정부가 누차 강조하는 경제적 국익만큼 식량주권, 문화적 국익도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통상절차 법안과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안도 조속히 제정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현재 대책이 전무한 농축산업의 현실상 한·미 FTA 협상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한편 농협조사연구소 통상연구팀의 황형성 팀장은 지정토론에서 DDA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 유지가 관건인 우리나라로서는 한·미 FTA 체결로 인한 관세철폐시 DDA 협상에서 매우 불리할 수 밖에 없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민감품목에 대한 유예를 얻을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에 UR협상때 낙농제품이 열악한 조건으로 타결되었음을 들어 한·미 FTA에서도 ‘쌀’이라는 변수로 인해 축산물에 대한 협상이 더욱 난항을 겪을 것으로 진단하였다. ㉞